

3D로 만나는 세계 최대 불교유적 '보로부두르'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 내년 부처님오신날 방영

742년 경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불교 국가 사일렌드라 왕조가 조성한 보로부두르가 3D 다큐 영상으로 탄생했다. 쓰리디렉터채널(대표 최세영)은 다큐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이하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를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담아냈다.

제작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촬영을 완성하고 현재 편집에 들어갔다. 최세영 대표는 "대장경 로드 5부작 다큐를 마무리하고, 육로로 전해진 불교 전법과 구법의 길뿐 아니라 해양으로 전해진 길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기획의도를 말한다.

유네스코에서는 보로부두르를 세계 최대의 불교건축물로 기록했다. 보로부두르는 2층의 기단 위에 사각과 원형의 단을 쌓은 9층의 피라미드식 계단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1460여면의 조각, 504종의 불상, 72개의 불탑으로 구성된 넓이 1만2천 평방미터, 높이 약 31.5미터, 약 350만톤의 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원이다.

건축시기는 750년~830년으로, 이는 석굴암 건축 시기와 비슷하며 왕코르와트보다 약 200년 앞선다. 72개의 불탑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이 있으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금 이 순간이 불교적 진리가 상주하는 법계이며 만다라로 우주의 중심임을 강조한다.

보로부두르는 완벽한 입체적 조형 건축물이자 깨달음의 과정을 한 단계씩 올라가 하는 이야기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다. 보로부두르의 부조 속 수행자의 모습들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보로부두르를 조성한 이들의 열일 역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 대표는 보로부두르의 건축은 독특하고 이상적인 종교관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보로부두르는 대승불교적인 세계관의 표현입니다. 세 단계의 구조 자체가 불교의 우주관인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三界)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계와 지계, 인계를 나타내며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보여주고, 사원 전체가 우주의 중심, 수미산의 축소판입니다."

완벽한 입체 조형 '보로부두르'

해양 실크로드 조형하고자 기획



위에서 내려다본 보로부두르. 탑 자체가 하나의 만다라다.

보로부두르는 인도의 불교설화와 경전이 고부조로 새겨져 있다. 1층의 회랑 상단 부조는 '방광대장엄경'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새겨 놓았다. 1층 회랑과 하단에는 '본생경' <잡보장경> <법구비유경> 등의 텍스트가 새겨져 있다. 부처님의 도솔천의 설법, 하생, 탄생, 출가 고행, 정각 그리고 녹야원에서의 초전법륜을 마지막 장



쓰리디렉터채널은 다큐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를 제작해 깨달음의 과정을 담아냈다. 보로부두르의 상징인 중요양의 벨 스투파(사진 위).아래는 보로부두르의 전경.

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탑을 한 바퀴 둘러보고 상층 기단 대탐에 오르면 불상도 비문도 없는 진공묘유(眞空妙有)에 도달한다. 최 대표는 "보로부두르는 하나의 만다라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로부두르를 공중에서 보면 만다라를 펼쳐 놓은 것과 같다. 원과 사각의 틀에 불타들이 정연히 늘어선 우주도"라고 설명한다.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내년 5월 부처님오신날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체방송은 스카이 HD, 2D 방송은 EBS교육 방송 그리고 불교방송 IPTV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콘텐츠 3D제작 평생숙제"

쓰리디렉터채널(주) 최세영 대표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는 국내 불교관련 콘텐츠로는 최초로 3D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보로부두르를 다룬 다큐멘터리로도 최초의 3D 영상입니다. 보로부두르는 화산재에 덮여 1000여 년간 망각의 시간을 보낸 후 19세기말 재발견됐습니다. 특히 2014년은 보로부두르가 최초 발굴이 시작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라 의미가 깊습니다."

쓰리디렉터채널 대표 최세영 피디(사진)는 11월 중순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종림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을 현장 나레이터와 인터뷰어로 동반한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편집을 진행중에 있다.

보로부두르 3D 다큐멘터리 제작은 인도네시아 국영TV(TVRI)와 공동으로 제작을 진행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영상대학(MMTO)과 업무협약을 맺어 조명, 특수장비, 촬영인력 등의 지원을 받았다.

최 피디는 이번 보로부두르 제작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인도네시아 종교협의회 불교단체대표자는 이 프로그램 제작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불자간의 협조와 교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과 협력을 통해 한니 양국의



영상, 종교, 문화 교류에도 한몫을 한 셈이죠." 이번 프로그램 제작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얻었다. "칸느 국제필름마켓에서도 유럽 방송사들이 방영권

수입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방송(EBS)에서는 해외 판권수 출대행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내년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방영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 대표는 3D 콘텐츠아말로 불교적인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찰은 입체적 공간으로 3D영상에 매우 적합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명찰' '선-마음의 지도' '비루공양' 등을 3D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쓰리디렉터채널 최세영 대표는 11월 중순 현지촬영을 마무리하고 편집에 들어갔다.

BBS 포교·계층 프로그램 대폭 확대

'지금은 실버시대' 등 노년층 프로그램 신설 눈길

BBS 불교방송이 포교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노인·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BBS는 불교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블록화를 통해 경전 읽어 주는 라디오 '경전의 숲을 거닐다', 청소년 프로그램 '네 꿈을 펼쳐라',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지금은 실버시대',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는 한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불교 프로그램을 신설 '부처님 말씀 속에 함께 하는 불자가장'을 도모한다.

BBS 신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 시간	내용
금강경 독경	매일 04:00-05:00	새벽시간 1시간 동안 금강경 독경 부처님말씀과 불교음악, 편안한 영상음악으로 아침을 연다.
오늘은 좋은날	월-일 07:00-08:00	불교방송과 함께 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이야기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문고 담고 함께 함께하는 부처님 시대의 공부법
지금은 실버시대	월-금 16:05-16:40	다문화 시대, 열린 세상 열린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경전의 숲을 거닐다	월-금 23:05-24:00	화제의 인물을 초대, 깊은 속내를 나누고 불교적 시간에서 이슈를 풀어나가는 시간
세계는 한 가족	토·일 16:05-17:00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시간
데스크 초대석	토 18:00-18:30	
네 꿈을 펼쳐라 1, 2부	1부 토·일 22:00-23:00 2부 토·일 23:00-24:00	

'금강경 독경' 프로그램을 신설, 5시 아침 예불, 경전공부, 한글반야심경, 불교강좌, 우리들의 찬불가, 자광 스님의 지혜의 길, 아침 7시대 오늘은 좋은날까지 3시간동안 불교프로그램 블록화했다. 그리고 심야 시

간대 청취자를 위해 밤 9시부터 불교 강좌, 명상음악여행 등 포교 프로그램을 2시간여 불특 편성했다. BBS는 "불교적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배치 공부하는 불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혜속 기자

4집 앨범 출시한 LMB싱어즈 기념음악회

12월 6일 오후 7시 매현아트홀서

LMB싱어즈(대표 황영선)가 창작 찬불가 4집 '마음의 빛깔'을 출시 기념음악회와 후원의 밤을 연다. 'LMB 싱어즈와의 동행'은 12월 6일 오후 7시 양재동 매현아트홀 3층에서 대중들을 찾아간다.

전문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 LMB싱어즈와 그 산하 단체인 우뻘까합창단(비전문가 모임)은 신바람, 소중한 인연, 어디로 가야하나, 원, 연꽃처럼, 마음의 소리 등을 공연한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지도법사 자우 스님, 신은숙 교수(화가)가 참여한다.

LMB싱어즈는 "신심 깊은 찬불포교사가 되겠다는 초심을 흐트리지 않고 정진하



LMB싱어즈 창작 찬불가 4집 '마음의 빛깔(사진 위)'을 출시, 기념음악회를 연다.



며 만들어낸 소중한 음악 불사'라며 "찬란한 열일곡 곡의 불음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LMB싱어즈는 전문 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으로 찬불가 보급과 불교음악발전을 위해 1999년 창립됐다. (02)882-1727

정혜속 기자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완성체·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저자는: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재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보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도별 책임자 1분씩 모집합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신중탱화